

성직자대학원 명칭만 바꾼다

“내용은 그대로”... 교계 백지화요구 거세질듯

정부가 최근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종교전문대학원으로 명칭만 변경한 채 종교인을 양성키로 하는 등 ‘논가리고 아동 식’의 탁상행정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지난달 26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밝힌 종교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내용은 ‘성직자’ 대신 ‘종교인’으로 ‘성직자양성’은 ‘종교인양성’으로 명칭만 변경한 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영수 문체부장관등 일부장관들이 성직자양성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교전문대학원제도로 바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관련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같은날인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대화를 통해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추진일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의 서명법 서기관은 “공식적으로 폐지다 백지화

다 결론 내린적은 없다”며 “성직자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종교라는 명칭으로 바뀌 9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뒤 10월중이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교육정책관실의 허달 서기관도 “백지화나 폐지에대한 공식적인 내부의견이 지시는 없었다”며 “기존의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실무자들은 명칭만 바뀔 뿐 정부가 성직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현승남은 지난날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경우든 종교전문대학원제도의 설립은 협상대상이나 원천부정이 아니다”며 “종교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예외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삼장권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범화추진위’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종교전문대학원 설치계획은 특정종교를 위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종교전문대학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방목적 선교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김원우 기자>

지역주의 타파대회
부산·광주등 불자유권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전남의 4개 지역 유권자대회가 지난달 23일 대구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개지역 공명선거실천 시민단체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지구 불교정년회, 불교자비회, 원불교부산교구, 불교인권위원회 대구지구부, 원불교 대구청년회, 대구 불교산악회, 대한불교대

불회, 광주불교사우연합회, 원불교 광주·전남대교구청년연합회등 불교단체가 다수 참여한 이날 유권자대회는 △매타적 지역주의 극복 △정책대결의 선거실현을 촉구하는 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를 마친 유권자들은 중앙초등학교에서 중앙파출소까지 공명선거대행진을 벌였다.

불자연합 파라미타 초대총재 성타스님

청소년 불자연합파라미타는 지난달 2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파라미타 정관(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초대 총재로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계종 10기 행자교육원 개원

274명 참여 22일간... 외국인도 4명

불조해명을 이어나갈 행자교육을 위한 제10기 행자교육원 개원고별식이 지난달 26일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민덕전에서 거행됐다.

이날 고별식에는 총무원교육원장 원상스님, 유나 보성스님, 직지사 부주지 법성스님, 석성우스님 등 30여명의 교육관계자들과 행자교육생 2백74명(남행자145 여행자129)이 참석했다. 91년 8월 해인사에서 처음 창설된후 10기째 맞는 행자교육원은 4월16일까지 총 22일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번 행자교육원에 입학한 행자는 중법에 의해 만15세부터 3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20대가 1백29명으로 가장 많고 40대도 17명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88명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다. 한편 외국인행자는 폴란드출신의 로갈스키(Rogalski 화계사) 행자를 비롯 모두 4명이 입학했다.

지역노인 위로잔치
대한중석 석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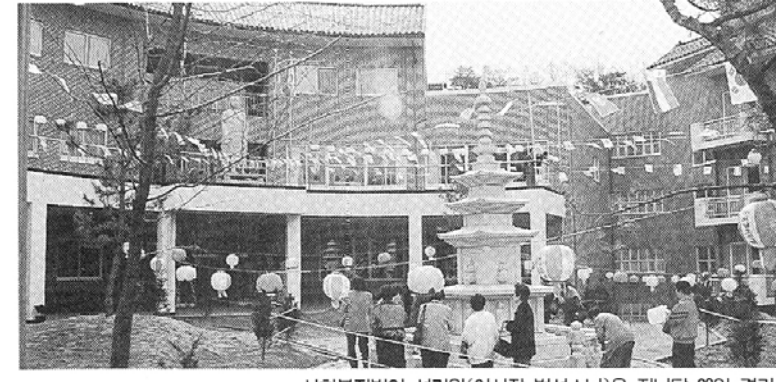
대구직장불교단체의 하나인 대한중석 불교석불회(회장 김동목) 창립1주년 기념법회 및 가향연 경로잔치가 지난달 24일 대종금속공고 강당에서 가향연 거주노인 3백여명과 직장 불교협회회 가족 1백여명등 사

승가대 안암동서 정규대 추진

대책위·운영협 김포-안성이전 여전히 불세

중앙승가대 대학위와 운영협 의회(교수 학생 동문 교직원대표, 개운사 봉은사주지, 수행관장으로 구성)는 지난달 25, 26일 각각 모임을 갖고, 현재 중앙승가대학이 위치해 있는 안암동 캠퍼스에서 정규대 승격

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설립기준령제정(안)입법예고에 근거한 것으로 안암동 캠퍼스가 교사면적이 73평 부족한 점만 제외하고는 교지면적, 교원수, 재정



성리실버타운 준공 사회복지법인 성리원(이사장 법성스님)은 지난달 28일 경기 가평군 삼면 봉수리 327천5백평의 부지에 유료 안양원(安養院) 성리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준공법회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법회에는 철보사 조실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가영-김재경 기자>

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석불회는 불잔치를 겸한 경로잔치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이발소 운영과 불자연예인 공연 그리고 불교병원 의우회의 도움을 얻은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구독신청: 737-0693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부족한 교사면적은 교사의 신속 또는 증축, 학생수 감원모집 등으로 가능, 정규대승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와 운영협은 학사 이전부지의 안성과 김포 선정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찰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다.



미주지역 70여 한국사찰이 포교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유대강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연합회는 △민족화합 기원 △경화 평등 자비의 사상을 근본으로 인종, 계층, 집단이해를 초월한 보살도 실천 △동서문

미주 70여 한국사찰연합회 발족

북한포교·승가대 건립등 추진... 회장 대원스님

미주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찰들의 구심체가 될 미주한국불교사찰연합회가 지난달 19일 하와이 대원사에서 발족했다.

연합회는 이날 창립과 함께 LA·뉴욕 등지에 민족사원과 승가대 건립, 미주불자와 북한 불자의 종교차원의 교류추진(금년 6월이나 10월), 금강산 신계사와 나진 선봉지역 철보사 개심사 복원, 원산해변에 통일과 민족안위기원대불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 조화와 민족문화창달 기여 등의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또 연합회는 정관제정에 이어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및 상임위원 등 임원을 선출했다. 고문에는 행원(LA 달마사), 법인(뉴욕 원각사)스님이 추대됐으며 자문위원에는 양일(캐나다 대각사), 설조(샌프란시스코 여래사), 도안(LA 관음사), 현호(LA 고려사)스님, 회장에는 대원스님(하와이 대원사)이 선임됐다. 또 부회장에는 현일스님(오렌지 카운티 법암사), 도법스님(보스

장례식장 용자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교계 운영방안 검토 필요

현오시설로 인식돼 온 장례식장 설치 활성화를 앞당기는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발표돼 불교계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법안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 장례식장 신축사업자에 대해 연리 8.2%, 5년 거주 7년 상환의 조건으로 1개소당 5억원, 병원 장례식장 증축 희망자에게는 3억원까지를 지원한다는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은 전통 사찰관리법, 사찰재산관리법 등의 불교계 재산관련법 등에 의해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찰과 법인의 경우 애로점을 갖고 있다.

이에대해 조계종 복지재단 이용권장장은 “뜻있는 신도의 참여를 유도한 후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운영의 마를 살려 용자조건을 갖춘다면 충분히 불교계에서도 장례식장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은 불교계의 복지사업 참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활용방법에 따라 사찰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석왕사 봉은사 등 운영규모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국 각 사찰에서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발연 자체해산
중회합성화 위해

조계종 종책개발연구회(회장 장운)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단회합과 중회합성화를 위해 중회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회장 장운스님은 “중단현안 문제해결과 종책개발을 위해 중회위원 중심으로 중발연을 결성했으나 중회발연이라는 오해가 있어 자체 해산한다”고 밝혔다.

북한동포돕기 ‘자비의 쌀’ 모금

초파일 맞아 범종단차원 전개... 5월말 전달예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한주민들에게 자비의 쌀이 보내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달 22일 종단협의회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북한동포 돕기 자비의 쌀 모금을 범종단차원으로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날 각 종단 대표자들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종단별로 자비의 쌀 모금법회

를 개최하고 봉축행사에 모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비의 쌀은 5월 31일 대한적십자사 또는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한다.

종단협의회 또한 이사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및 CD-ROM을 제작하기로 했다. 가이드북 및 CD-ROM에는 한국불교 소개, 한국의 유명사찰 등이 수록된다.

불교계 큰일꾼 모임

불기법, 13일 동국대서

교계 신문과 잡지 방송 출판에 종사하는 젊은 불자들이 구성된 ‘불교계 큰일꾼 모임’(공동대표 하춘생·김학주)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국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젊은 불자들간의 우의와 지혜를 나누는 계기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원을 비롯 불교방송과 불교 TV 기자, PD, 출판편집자 등 1백여명이 참가한다.

한편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달 25일자로 ‘불기법회보’ 북한호(제4호)를 발행했다. 불기법은 회보를 격월간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발행한다.

마음 짐착에서 오는 고통

내게 고통을 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신체도 없습니다. 고통이란 자기 마음의 짐착이나 저항에서 옵니다. 모든 것은 창나도 쉬지않고 돌아가는데 그것을 고정되게 보려는 생각(저항)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범법제회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올림-

특별기획 1 중국 티베트 네팔 9일

- 일 정: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제-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230만원
- 기간: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135만원
- 기간: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180만원
- 기간: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출발 모집중(확정)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그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गर-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른나루아-시기리야-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145만원

HVECHO ADVENTURE TOURS, LTD. **국외여행업 제604호**

혜초여행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대)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 상담현역 (일정조정 가능)